

브로드웨이 뮤지컬 <CARRIE>를 통하여 본 청소년 문제 Perspective of Juvenile Problems by Musical <CARRIE>

김혜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예술학부

Hye-Jin Kim(hjkim@dima.ac.kr)

요약

문화 콘텐츠 리부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오프 브로드웨이를 통한 브로드웨이 성공 신화를 쓴 <캐리>는 뮤지컬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될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 올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유튜브 채널이나 국제 공연 예술 전문지를 통해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뮤지컬 <캐리> 대본은 드라마의 극적 소재로서 학교 폭력, 가족간의 소통의 부재, 극단적인 종교 심취만이 아닌 오늘날 사회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는 이론서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게한다. 오늘날 STEAM을 활용한 스마트러닝이 다양한 교육 방법에 도입되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시대 정보와 기술 습득을 위한 속도감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STEAM 교육에 감정(Emotion)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은 유대감보다 가상 현실을 통해 현실에서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 뮤지컬 <캐리>를 통해 해석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뮤지컬 작품을 통한 사회문제를 진단해본다.

■ 중심어 : | STEAM | 브로드웨이뮤지컬 | 캐리 | 청소년문제 | 소셜미디어 |

Abstract

The reason to research the musical <CARRIE> is it has a lot of useful things for the various studies department not only Korea Musical Theatre own although it has been a successful musical theater on the Off-Broadway by Reboot culture era. Even though <CARRIE> does not release on Korea, the popular of the show and powerful results of environments have deliver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gazines and Youtube channels to Korea. To study of Musical <CARRIE> will be lead us to the world which adopted to the social problems as the youth school violence, family communication hurdle, and religion missing by script not only the musical drama but the interpretation for Teen-agers social problem. There are many kinds of Neo educations are proved by smart learning as STEAM. The students who have been studied with the smartphone, I-pad, personal computer, or laptop as smart tools for class are familiar as feedback processing speedily. It would make them learn the skill for their knowledge of a digital age, but it should not let them how to understand other people's emotion as real although STEAM has emotion part. Besides they have communicated on the social network not the ordinary man but the special ego by themselves, as mention or retweet as like their amusements and make the gossip group. This study would show the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een-agers Social Problem and who is the victims today's juvenile problems though the musical <CARRIE> based on Jim Taulli's directing.

■ keyword : | STEAM | Broadway Musical | CARRIE | Jim Taulli | Juvenile Problems | Teen-agers | Social Media |

접수일자 : 2015년 10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07일

교신처자 : 김혜진, e-mail : hjkim@dima.ac.kr

I. 서론

오늘 날 브로드웨이는 <웍 어브 에이지>, <북 어브 물론>과 이야기 하기 쉬운 스토리를 원하고 있다. 심각하거나 무게감이 있는 시사성이 있는 주제는 마치 커다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야하는 시대가 되버렸다고 뮤지컬<캐리>의 작가 로렌스 코헨은 뮤지컬 <캐리> 대본 서두에 작가 서평을 두드리지게 묘사하며 오늘날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에 치우친 작품 소재 선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과거의 <미스 사이공>이나 <스프링어웨이킹>과 같이 현실의 비극적인 실상을 뮤지컬 무대와 극 중 드라마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거의 찾기 어려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오늘 날 흐름 가운데 뮤지컬<캐리>는 가정과 학교 전반에 걸쳐 감추어져 있던 비극적의 실체를 일상적인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타임 매거진의 리차드잭핀은 <캐리> 핵심이 바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이면의 실체를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평한다[1].

스텰븐 킹(Stephen King)의 <캐리(Carrie)>는 1974년 소설로 첫 발표된 이래, 브라이언 드 팔마(Brian de Palma)에 의해 1976년 영화로 제작되어 책과 영화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레미제라블> 이후 공을 들인 작품으로 <캐리>를 선정한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각색해 영화에 참여한 로렌스 D. 코헨이 뮤지컬 대본을 맡고, 가사는 딘 피치포드, 음악은 뮤지컬 <패임>으로 유명한 마이클 고어가 담당했다. 하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팬층을 확보했던 <캐리>는 1988년 뮤지컬로 제작되어 세상을 마주하자마자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몇 회 공연되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만 남긴 채 사라져야했던 비운의 작품은 어두운 주제와 예상 가능한 음악의 흐름 가운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 되었고 그렇게 뮤지컬 <캐리>는 화려한 소설과 영화의 흥행에 반하여 어두운 그들과 같은 그림자처럼 원소스멀티유즈(OSMU)의 부정적 사례의 암담한 예시속이나 등장하곤 했다. 뮤지컬 <캐리>는 작품성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흥행으

로 인정받지 못한 작품으로 상업예술의 꽃이 되는 뮤지컬 현장에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2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way)에서 뮤지컬 <캐리>는 기존의 작품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으로 변신[2]하여 그 이름을 드높인다. 그리고 그 변신은 완벽했다. 리메이크(Re-Make)가 아닌 21세기 리부트(Re-Boot) 문화 흐름을 그들의 프로세싱으로 보여주면서 뮤지컬<캐리>팀이 결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한다. 실제로 1988버전 뮤지컬 <캐리>와 2012 버전은 연출 의도와 형식을 비롯한 대본뿐만 아니라 악보도 다르다. 하지만 이 두 버전의 작품은 완전히 다르면서 동시에 같은 뮤지컬<캐리>로 많은 평론가와 관객의 환호속에 성공적인 뮤지컬 작품으로 인정받고 2012년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공연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고, 유일하게 한국 대표 뮤지컬 전문지인 <더 뮤지컬> 2015년6월호 특별 기고란에 뮤지컬 <캐리>에 관한 소개가 있지만, 그 명성에 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작품이다. 그러나 뮤지컬 <캐리>는 앞에서 거론한 드라마틱한 뮤지컬 성공 신화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초기 작품과 리부트 작품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허울속, 비뚤어진 사랑으로 인한 가정과 학교 폭력의 실체는 작품 분석을 통해 향후 공연예술 연기분야 뮤지컬<캐리> 캐릭터 연구를 비롯하여, 학교 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치료를 위한 문화 콘텐츠 제공 및 뮤지컬을 통한 청소년 심리 연구 등, 문학에서 파생된 멀티 유즈 콘텐츠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발전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뮤지컬<캐리>의 선행 연구로 가치를 갖는다.

II. 본론

밝고 신나게 춤추는 모습이 일반적인 뮤지컬이라는 장르라 하여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귀신 혹은

악령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모습만은 아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오페라 유령>, <지킬앤 하이드>, <쓰릴미>, <셜록홈즈>와 같은 스릴러와 추리물은 뮤지컬에서 친숙하고도 인기 있는 소재거리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캐리>처럼 인간 심리를 소재로 삼고, 게다가 공포 영화로 흥행을 거뒀던 무대 연출 작품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캐리>는 ‘뭔가 끔찍한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기저에 깔아놓은 채, 모르는 척 밝은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관객을 은근히 긴장시키는 노선을 택했다고 조연경(2015)은 말하고 있다. 공포와 스릴러 뮤지컬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레지타티보 형식이나 비화성 음계를 사용한 손다임의 스위니 토드와 같은 여느 뮤지컬 음악 형식을 따르지 않고, 반어법적인 효과로 비극을 경쾌하고 밝게 풀어낸 뮤지컬 <캐리>의 ‘Do me a favor’는[3]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을 사랑하리라며 ‘오직 오늘 뿐(No day but Today)’를 노래한 뮤지컬 <렌트>처럼 록 음악 비트감과 팝의 가벼움을 통해 비극적 현실을 부정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던 1976년 영화와 달리, 밝은 음악 가운데 음울한 불안을 깔아 마지막에 한꺼번에 폭발시킨 뮤지컬 <캐리>는 브로드웨이 대표 메가 뮤지컬 중 하나인 <위키드>의 넘버인 ‘마법사와 나(Wizard and I)’처럼 학교 생활의 외톨이, 왕따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이엠 송 ‘Carrie’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꿈꾸며 희망적인 아이윈트 송으로 전환된다[4]. 밝고 경쾌한 리듬의 극적인 화음 진행으로 판타지를 경험하게 하는 음악 패턴은 노랫말과 대조되어 비극으로 끝나는 드라마 결론을 반추해볼 때 주인공을 희망 고문하는 결국 가장 슬픈 작품명과 동명의 주제곡이 된다. 이러한 주제곡 제목을 정하는 방식은 작품을 전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코믹적이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심각한 내용을 함의하는 것으로 주제어를 설정하고 리프라이즈로 연결[5]하는 뮤지컬 극작의 교과서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캐리> 역시 작품 제목과 동일한 넘버 제목으로 사용되는 주제곡으로 작품을 이끌고 가며, 캐리 넘버를

비롯하여 엄마의 선율, 앙상블의 합창, 대사 중간 배경 음악까지 작품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프라이즈 선율로 희망과 슬픔을 넘나들게 한다.

뮤지컬 연출가 짐톨리(Jim Taulli)의 2015 버전 <캐리>의 공포는 소름돋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악랄한 순수함에 드리워진 아픈 상처를 갖고 사는 미성숙한 어른의 이야기[6]를 캐리 가족의 이야기로 담담히 풀어가며 보고 싶지 않은 동시대 사회 문제를 대면하는 순간 느끼게 하는 공포다. 또한 경험 의존적 소통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오늘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 문제 너머의 사회 문제의 민낯을 캐리가 관계하는 단적이면서 전부인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한다. 이와같이 시간의 흐름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인식에 대한 문제를 현대 사회문제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뮤지컬 <캐리> 속 타자와 캐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청소년 문제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생활 속 간과된 타인, 소외된 자아

소설 캐리는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의 능력은 학교에서 첫 월경을 경험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 교실 천장의 형광등 전기가 불안하게 나갔다 들어오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캐리를 포함하여 그 당시 함께 있던 선생과 동급생 모두 그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간과한다. 조연경(2015)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장난이 불씨가 되었음 뿐 이 작품 속에 진정 나쁜 의도를 품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행동하는 인물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신체와 인지능의 급격한 성장과 발달도 인하여 아동기 때 나름대로 확립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다. 자아정체감은 전생애 있어서 인간이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인 동시에 청소년기 중요한 과업[7]이므로 청소년의 순간적인 행동이라해도 상정화된 의미 체계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상인 것이다.

캐리의 동급생들은 캐리가 초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흐르는 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조롱하며 야유한다. 이 사건은 곧 여학생들 사이에서 군중 심리로 작용하고 동시에 각자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 상황을 촬영한다. 이때 약자를 향하여 군중들이 현장에서 폭언을 가하는 것과 그것을 동조하는 자들이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은 같은 폭행 의도로 볼 수 없다. 현장에서 폭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던 관객속에서 정리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시사성을 갖고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조롱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시청각 자료를 보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원치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정 및 대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2, 제3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상하게 한다[8].

디지털 시대(Digital Age)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21c 청소년이 자신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캐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조소하면서 촬영했다는 것은 이들의 심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이미 타인의 약함을 조소거리고 치부하고 쉽게 악성 댓글을 다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된다. 짐 톨리(Jim Tauli)는 극중 학생들이 캐리를 향해 생리대와 수건등을 던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1막 중간에 무대 전면 스크린을 통하여 학생 개인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되는 모습으로 드라마를 묘사하는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하여 캐리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뮤지컬을 연출함으로 학급 전체 학생들이 이 가습으로 시작하여 캐리에 대한 다양한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그 누구에게도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극도로 외로운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2012년 오프브로드웨이 버전 뮤지컬 <캐리>에서 나아가 객석까지 무대로 활용하는 연출을 선보이는데 전면에 자리잡은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캐리가 경험하는 학교 생활의 어두운 단면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순간 관객들도 침묵으로 동조한 공범이라는 부담감을 갖게 한다. 또한 붉은 피와 붉은 조명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불안감은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 열기 효과를 강력하게 사용함으로 관객이

드라마 말미 모두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사고를 직접 경험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사건을 주도한 학생들을 향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장난이 큰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난속에 함의되어 있는 폭력의 성질을 간과하고 그것이 표출되었을 때 잘 잘못을 따지며 징계를 내리는 방법이 아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청소년 문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캐리를 향해 보드를 타고 달려들며 험한 말로 놀려대는 빌리놀먼의 스케이트보드가 갑자기 공중으로 날라가는 장면에서 캐리의 염동력이 암시되는 드라마의 극적인 전개를 차지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빌리가 캐리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목인하는 장면이 한 예이다. 이 장면에서 고등학생들은 빌리의 행동과 캐리의 상황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일상적으로 오가는 말장난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빌리놀먼을 향해 조소하면서도 언어 폭력에 노출되었던 캐리를 향한 동정은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왕따로 인식되는 캐리를 향한 그저 일상화된 패턴일 뿐 그 누구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관심이 없다. 결국 이러한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들의 담당 선생님인 미스가드너가 가해자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캐리에게 강압적으로 사과를 권함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가해자들이 사과를 이끌어내지만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자존감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표면적인 처방으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에 감정의 골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게다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로부터 도피하거나 반발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청소년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에 근거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약자만이 약자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보려했던 선생의 어긋난 처방전으로 인하여 캐리를 비롯한 모두가 학교 생활의 비극적 결말을 맺게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

고 만다.

2. 가족퇴행과 현실도피처로서의 종교

뮤지컬 <캐리> 1막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성향은 전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여느 미국 가정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딸을 맞이하는 엄마 마가렛의 모습이나, 습관처럼 잠들기전 기도를 하는 캐리 가정의 모습은 라디오를 켜다 끄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찬양대 찬양처럼 쉽게 나타났다가 동시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자연스럽지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생활 패턴이다. 미신적인 염동력에 대해 캐리가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강압에 의해 자기 방 옷장에 갇혀 홀로 기도하게 되는 비극적이고도 종교적인 순간이다.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샤워실에서 처음 월경을 경험하면서 친구들에게 당한 모욕적인 사건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월경을 시작함으로 캐리가 부정할 여인이 되었다 믿는 엄마는 그녀에게 냉담하기만 하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신의 뜻 안에서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면 그동안 훈련해 왔던 방법으로 캐리를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한다. 이때 옷장 안에 있던 십자가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캐리는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에 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지만 불안할수록 더욱 기도에 매진한다.

지난 밤 경험했던 움직이는 십자가 상으로 인하여 캐리는 혼자서 책을 찾아가며 염동력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내재된 힘을 반복적인 집중 훈련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초신비주의적 경험은 은둔-외톨이형 청소년이 극단주의적 종교 성향을 갖게 함으로 불안하고 우울증과 동시에 다혈질적인 복합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들이 입대를 거부할 때 군복무를 면제하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종교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이 상식적인 군생활을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하게 될 집단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로서 극단적인 종교의 심취는 관리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은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분화의 하부영역인 가족퇴행으로 나타난다. 처음 월경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사건을 있을 때를 비롯하여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가 폭발해서 온 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염동력을 휘두르며 무도회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캐리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애정을 갈구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기도문과 함께 신앙의 힘으로 캐리를 위로한다. 반복적인 생활 패턴속에서 캐리는 종교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만, 결국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엄마에 대한 애정은 엄마가 중요시 하는 신을 향한 신앙심으로 변질된다. 하지만 극 중에서 카톨릭으로 표현되는 캐리의 신앙은 결코 그녀의 진실이 될 수도, 그리고 그녀의 엄마 마가렛의 진실된 삶이 될 수도 없다. 마가렛과 캐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은 신앙심에 근거한다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며 성경을 인용하는 마가렛조차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는 캐리를 마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캐리를 향해 식칼을 꽂기 때문이다. 엄마의 칼에 찔린 채 엄마마저 염동력으로 죽이고 마는 비극적인 가족사로 막을 내리는 뮤지컬 <캐리>는 작품 전체적으로 학교의 일상이 가장 많은 장면으로 연출되고, 캐리와 관계하는 인물 역시 엄마를 제외하곤 모두 학교에서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전부여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능력 소녀의 분노를 비극적으로 다룬 청소년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한 학원물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극 중 에필로그 넘버에서 ‘You see unsee’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전체 출연진이 노래하듯 이 작품은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억울하기도하고 불쌍한 외톨이 청소년 문제를 캐리의 학교 생활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작품에서 캐리의 학교 생활 부적응은 건강하지 않은 캐리와 엄마의 관계, 즉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가족의 퇴행에 주목하고 있다.

캐리는 종교에 광적으로 빠져 있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전교생의 놀림감이 된 캐리는 늘 위축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기척 없이 걷는다. 이러한 극 중 인물 상태를 미국 청소년 기독교 상담 센터에선 광적인 종교 행위와 청소년 문제 사례 연구를 통해 건강한 신앙의 회복은 건강한 사회성을 갖는다며 캐리와 엄마 마가렛에 대하여 성경과 기도를 삶 가운데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해당 종교 카톨릭을 비롯하여 그와 연계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는 용서와 사랑이 보이지 않고 특히 마가렛이 캐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캐리가 아파하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제자됨을 따르는 신앙 생활에 위배되는 것으로 캐리만이 아닌 마가렛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표현했다. 또한 가족퇴행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9]를 바탕으로 캐리의 엄마와 캐리를 진단한다면 마가렛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애정 결핍은 광적인 종교 생활이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족퇴행을 통해 캐리에게 전이 되었음 역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마가렛이 종교의 건강한 사회적 순기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캐리를 향한 신앙 생활의 권면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가정을 통한 사회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마가렛이 극중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역은 2시간 30분 가량의 공연 내내 캐리가 유일하게 직접 대면하는 인물이고, 신에 대한 일방적인 마가렛의 고백이 전부다. 다시 말해서 마가렛의 현실도피처로서의 종교 생활, 비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대표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캐리를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가족퇴행의 주체가 된 엄마의 조언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선택하게 됨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자아를 형성했다.

III. 결론

원작 소설이 4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뮤지컬 <캐리>는 지금과 통하는 구석이 많다. 교육적 가치 추구를 절제하고 극적인 것과 유희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뮤지컬[10]이라 할지라도 예술은 결국 교육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뮤지컬 <캐리>에서 사춘기 학생들은 작은 사건도 거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믿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혼란스러워진다. 소설미디어를 통한 폭력과 왕따 문제, 경험에 근거한 미성숙한 조언, 소통의 부재는 기성세대와 타이어의 피비우스피다. 그렇기에 지식과 정보화 시대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기술적 소통의 디지털 시대라 할지라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고 순리인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다. 캐리는 학교 생활 소외 문제를 엄마와 이야기 하고 싶어했지만 현실도피처로 종교에 심취했던 캐리 엄마는 종교 생활을 강요했다. 유일한 의지 대상자와 긍정적 애착관계를 갖고자 하는 청소년은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온전히 동의하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유일한 의지 대상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치 않아 암묵적 동의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대화가 평화로울수록 내면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캐리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은 점점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용납이 되지 않는 억제된 수용은 반문의 극이 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된다. 그러므로 뮤지컬 <캐리>는 비극적인 학원 스틸러룸 관점만이 아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으로 건강한 소통과 가족 퇴행을 방지의 중요성을 반추한다. 그리고 의존과 자립의 경계에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보여주며 청소년 문제에서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거리감을 두고 보라고 말한다.

참고 문헌

- [1] Lawrence, *Carrie*, Rogers and Hammerstein Organization, pp.3-383, 2012.

- [2] 조연경, 더뮤지컬, 제15권, 제6호, pp.27-30, 2015.
- [3] Dean Pitchford, *Carrie, Rogers and Hammerstein Organization*, Vol.10, 2012.
- [4] 김혜진, *Musical Englis*, 예영커뮤니케이션즈, 2013.
- [5] Aaron Frankel, *Writing the Broadway Musical*, Dacapo Press, pp.142-143, 2000.
- [6] www.latimes.com/weekend/news/tn-wknd-et-1011-scary-performances-20151011-story.html
- [7] 구승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0, 2011.
- [8] http://www.ytn.co.kr/_ln/0103_201509021602587910
- [9] 이혜순,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33-339, 2013.
- [10] David Spender, *The Musical Theatre Writer*, Heinemann, pp.110-112, 2005.

저 자 소 개

김 혜 진(Hye-Jin Kim)

정희원



- 200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공연 예술(석사)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 비교문학비교문화(박사수료)
- 2007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관심분야> : 실용음악, 뮤지컬, 융합콘텐츠, 온라인 예술교육, 예술대학의 국제통용성, 청소년, 문화교류